

투데이 칼럼

망부상, 정읍 랜드마크 추진...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야

지난 5월29일 정읍의 모 지역언론에서 하나를 만들어도 명품을 만들자는 기사를 봤다.

그 내용은 "정읍의 역사적 사실에 가인하고 정읍만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읍사 망부여인을 크게 만들어 정읍시내와 내장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곳을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로 올라 상시적인 공연도 보고 정읍에서만 보고 즐길 거리를 꼭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을 해야 한다.

그래야 정읍시가 관광 유동인구를 늘려서 상주인구 증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다. 또 하나는 '서지 말미아기' 제3호 칼럼에서 글쓴이는 "문화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지방화·세계화 시대에 지역의 문화를 결집하고 재생산하여 세계에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다"고 말했다.

문화시설은 그 지역의 독특한 인문 및 자연환경과 뿌리 깊은 정신문화의 지력이 있어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 가장 토속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새로운 시설과 웅장한 현대 건물을 보러 그리스와 로마를 가는가? 수 천년 전 그 지역들의 문화와 문명이 어떤 정신적 가치를 갖고 있고, 그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계승할 가치는 무엇인가의 진중한 숙살을 들여다보기 위해 같



옥치용 전 정읍중학교 교장

것이다. 발전하는 지역을 보고 배우되 지역발전의 성공 요인과 동력을 안에서 찾아야지 밖에서 찾아선 이길 수 없다.

크고 화려한 시설로 승부하겠다면 더 크고 더 화려한 시설이 타 지역에 들어서는 순간 기존 시설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진다. 즉 실 패할 우려가 크다. 서울에 123층 롯데 타워가 들어서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통했던 여의도 63빌딩은 머리에서 사라졌다. 문화와 유행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유행을 좇는 시설은 새로운 트렌드에 쉽게 사라져 버린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그래야 운영의 어려움이 없어 순조롭게 정착되고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이다. 서둘러서는 안 된다. 세상이나 성과에 조금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랜드마크란 그 지역을 대표하거나 다른 지역과 구별된 상징표지(象徵標識)로 동상이나 건축물 등을 뜻한다. 그래서 지

역 상징물은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 문화에서 정체성을 찾아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다.

서울의 랜드마크는 조선 600년 역사를 간직한 전실의 동물 문화문 앞 해태상이다. 경주의 랜드마크는 백제의 아비지가 건축했다는 황룡사8층목탑과 예밀레종이고, 제주의 상징물은 돌하르방이다. 살펴보면 그곳만이 가진 문화와 역사성의 특성과 정체성을 띠고 있다. 그러면 정읍의 랜드마크는 무엇이 돼야 할까? 정읍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만 들어진 함축된 문화와 정읍 사람들이 지켜온 숨결이 느껴지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누구나 기억하기에 좋고 친근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모방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정읍만이 가지고 있는 인문 및 문화의 특성 속에서 찾아야 경쟁력이 있다. 거기에 정읍 랜드마크의 당위성(當爲性)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읍시의 랜드마크

크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전국화 및 세계화를 외치는 동학농민혁명의 랜드마크가 같을 수 있겠는가? 정읍의 랜드마크와 국가가 추진하는 동학 선양의 랜드마크는 분명 격이 다르고 별개로 추진돼야 한다. 1300년 역사를 안고 살아온 정읍사 여인인 망부상이 정읍의 랜드마크로 추진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문가의 자문과 지역문화를 잘 아는 문화인들의 견해를 경청하여 선정위원을 구성하고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정읍생활문화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상시적인 공연도 보고 달빛축제와 같은 즐길 거리를 꼭 만들어서 소원도 이루고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해야 한다. 그래야 정읍시가 관광 인구뿐 아니라 상주인구의 증가로 부가가치를 이루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이 상징물로 각종 문서, 인증, 팻말, 명함, 자기용이나 대중교통 수단 등에도 문양을 넣어 정읍 홍보로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정읍의 랜드마크가 정읍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발전의 동인이 되게 해야 한다.

행정행위는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먼 미래를 보는 혜안을 갖고 충분한 논의와 토론 절차가 이뤄져야 공감을 얻는다.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필수조건이다.

사설

젊은 여성들도 전복을 떠나는 중

청년들이 전복을 떠나는 게 고만이 되고 있는 중에 젊은 여성들도 떠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같은 소식은 전북연구원의 이수브리핑에서 알려졌는데 전혀 뜻밖이다. 인구 동향과 관련하여 전북도가 긴장 모드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때이지 않나. 도지사는 며칠 전 제8회 인구의 날에 간담회의 자리에서 임산부와 다자녀가구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워라벨 정책을 위해 직원 목소리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늦은 발표가 아니었나 물어보고 싶다.

도내 인구 유출 대다수는 청년들이었다. 생각했는데 그게 젊은 생각이었다. 스무 살에서 스물네 살 사이의 젊은 여성들의 경우는 청년들의 유출보다도 더하다는 보고이니 문제가 심각하다. 전북도는 말 그대로 전북의 인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겠다. 그리고 전북도는 이 어려운 때에 도내 젊은이들에게 진짜 희망을 보여줘야겠다. 출산과 쪽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펴려면 우선 도내 젊은 여성들이 전북 지역에 눌러 살게 해야 한다.전복도는 인구의 날 기념 간담회 때

말했던 그 발언 그대로 구체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젊은이들은 남녀 할 것 없이 거둬들인 경제 우환으로 일자리가 부족해 불만이 가득하다. 전북도의 말과는 다르게 일자리 창출이 적으니 왜 아니 그러겠는가.

전복도는 힘을 내 지금의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은만큼 전력투구해야만 한다. 일거리가 산더미라 지칠 때도 있으리라는 짐작이지만 그래도 힘내야 한다. 그리고 다급한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팔소매를 걷어부쳐야 한다. 전복도는 미래 비전을 말했지만 현실은 어려운 것 투성이다. 저번에도 여러 번 지적했거니와 전복도가 문제 해결에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도민의 바람과는 반비례하여 인구가 큰 폭으로 줄고 있으니 난감하다. 전복도가 젊은 여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체크해야 한다. 인구의 날 이벤트에서 도지사가 언급했던 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결국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에 신경을 쓴 그 이상으로 젊은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문이다.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도내 기성세대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 청년들과 함께 하겠다는 정신 태도를 가져야겠다. 전복을 떠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근거가 되어 달라는 당부이다. 미취업 청년들이 '헬 전복'을 말하면서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부족 때문에 여전히 탈전복이 이어지고 있는데 방관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더욱 답답한 것이 있다. 열 명중 네 명꼴로 비경제 인구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얼핏 생각해 비경제 활동 인구를 두고 그게 무슨 고민거리냐고 말할 이도 있을지 모르겠다. 일하기 싫어서 비경제 활동인구가 된 게 아니냐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단정할 것이 아니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분류된 이들은 일반 실업자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다. 아예 취업하기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자는 장차 취업할 희망이라도 있지만 취업을 포기한 이는 앞으로도 계속 실업자로 남을 공산이 크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관청은 일자리 창출을 전복도에게만 맡기지 말아야 했다. 관청은 일자리 마련의 책임을 전복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

다.공기업인들에게도 있고 일반 민간기업인들에게도 있다. 다들 진정성을 가지고 관청은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겠다.

기성세대는 눈을 똑바로 뜨고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럴려면 언론사들의 보도를 면밀히 읽는 가운데 젊은이들과 함께 가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 지역의 취업률이 매년 전국 최하위 수준이니 답답한 세월이다.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당부하는데 지역의 청년 고용이 제대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관청은 일자리 만들기가 공감이 되는 수준이냐를 따져야 한다. 기간제 일자리나 시간제 일자리는 결코 관청은 일자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일자리 만들기에 협조하는 척 했다가 그만 두기를 반복하는 것은 청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기성세대는 도내의 많은 미취업 젊은이들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 취업의지를 상실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려는 부탁이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다가 안 되니까 생각을 접고 수도권으로 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독자제언

정서적 방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고

정서적 방임이란 부모가 자녀들에게 경제적 여건은 제공하지만 정서적 유대관계가 끊겨 아동들이 외톨이로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맞벌이가정 증가 등으로 나타난 사회병리 현상이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청소년 강력범죄자들은 부모의 맞벌이로 아이들 방치한 것과 닮은 점이 없는 '정서적 방임'의 흔적을 갖고 있다.

방인된 아동들은 범죄의 가해자로, 혹은 피해자로 10대 범죄에 휘말리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자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 양육과정에서 문제를 겪었다.

밥을 주지 않은 것이 물리적 방임이

라면, 사랑을 주지 않은 것은 정서적 방임에 해당된다.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같이 생활하지 않으면 정서적 유대를 쌓아갈 수가 없다.

방임되면서 겪는 애정결핍이 아이들을 충동적으로 만들며, 욕망에 취약하고 충동적인 성격이 결국 비행으로 이어진다.

방치되는 아이들을 구해내지 않으면 청소년 흉악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방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재고해야 할 것이며 방인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녀들과의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철호 원산경찰서 형문감사관실 경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롤러코스터 뒤에 걸린 보름달



아폴로 11호 발사 50주년인 16일(현지시간) 미 미주리주 캔자스시외의 '월드 오브 펀' (Worlds of Fun) 테마파크에서 시민들이 타고 있는 롤러코스터 뒤로 보름달이 떠 있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복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